이안의 Media In Buddha ⑮ 영화 〈자전거를 탄 소년〉



▶한줄요약
진짜 어른은 '자전거를 탄 아이'가 넘어졌을 때, 쓰러진 자전거를 바로 세우고 자신이 가야할 곳에 자전거를 기대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 아이에게는 바로 전륜성왕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다.

당신이 '진짜 어른' 되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컬어 법륜(法輪)이라고 한다. 불법의 바퀴라는 이 말은 부처의 가르침으로 세계를 교화하는 전륜성왕의 바퀴에 비유한 말이다. 전륜성왕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대왕이라고도 한다. 바퀴라니, 왜? 말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왕이니까.

인도 신화에서 종교적 이상과 정치적 이념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정치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 제왕이 전륜성왕이다. 그래서 불교만이 아니라 힌두교와 자이나교에서도 전륜성왕을 기린다.

전륜성왕은 일곱 가지의 보배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금, 은, 구리, 철의 네 가지 바퀴가 바로 일곱 보배 가운데 하나다. 왕이 다른 곳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이 바퀴가 앞서 다니면서 땅을 평탄하게 하고 여러 민족을 법에 따르도록 한다고 하니 새로운 왕의 전위 역할을 하는 보배인 것이다.

바퀴는 인간이 문명을 일구고 전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바퀴는 물자나 사람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바퀴가 구르려면 고르고 넓은 길을 닦아야했고,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아닌 길 닦는 일에 사람들을 부리려면 강력한 통치자가 이끄는 권력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륜성왕의 바퀴는 비유적 의미로 통치는 무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정법이라는 바른 뜻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다고 하는 이상적인 통치를 일컫는 상징인 것이다. 바른 법에 어긋나는 자는 전륜성왕의 상징인 수레바퀴가 끝까지 쫓아 바른 법으로 이끌게 만들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니 바퀴를 선물한다는 것은 법을 선물한다는 것이고, 길로 나아갈 수단을 선물한다는 것이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선물한다는 것과도 같다. 어린 시절 가장 큰 선물은 자전거다. 자전거는 아이가 부모에게 받게 되는 가장 재미있으면서 편리하고 값비싼 선물일 것이다. 부모가 자전거를 준다는 것은 혼자 바퀴를 굴릴 만큼 컸다는 인정과도 같고, 비싼 선물이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는 증표와도 같다.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를 사준 아버지가 사라지고, 자전거도 감쪽같이 사라진다면? 아이는 왕이, 법이, 세상이 사라진 것과도 같은 혼란과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자전거를 탄 소년〉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아이에 대한 영화다.

한때 한국영화계가 상을 받는 것은 꿈도 못꾸고 그저 비경쟁부문이라도 초청되는 걸 대단한 영광으로 자랑삼던 '영화제 중의 영화제'가 칸 영화제다. 이창동 감독이 〈밀양〉으로 감독상이나 작품상이 아니라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쾌거'가 되고, 그래서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다른 영화의 평가를 맡기면서도 정작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는 각본상을 주는 정도로 대접하는 까탈스러운 영화제인데도 전세계 영화계는 다른 어떤 영화제보다 칸에서 인정받는 걸 최고의 칭찬으로 여긴다.



영화 〈자전거를 탄 소년〉 한 장면.

그 칸 영화제에서 네 번째 장편 극영화 〈로제타〉(1999년)로 일단 황금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은 다음부터 모든 작품이 만드는 족족 칸 수상작이 된 대단한 감독들이 있다. 늘 둘이 함께 작품을 만드는 형제 감독 다르덴 형제. 벨기에 출신인 형 장 피에르 다르덴과 동생 뤽 다르덴은 시나리오, 연출, 제작을 함께 하는 형제 감독으로 수십 편의 다큐멘터리에서 이미 호흡을 맞추다가, 1987년 첫 장편극영화 〈거짓〉을 연출했다.

〈아들〉(2002년)은 제55회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더 차일드〉(2005년)로 남들은 평생 한 번도 받기 어려운 황금종려상을 또 받았으며, 〈로나의 침묵〉(2008년)으로는 각본상을, 그리고 2011년에는 〈자전거 탄 소년〉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다르덴 형제는 콧대 높은 칸이 가장 사랑하는 감독의 자리에 있다.

1970~1980년대 유럽 노동자의 팍팍한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다르덴 형제는 장편 영화에서도 동시대 사회 현실이 평범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드리우는 그늘을 영화에 담는다.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을 스크린 앞에 잡아두기 위해 대부분의 장편 극영화는 복잡한 플롯, 관객의 허를 찌르는 반전, 드라마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독특한 캐릭터 등을 최대한의 영화적 기교로 짜맞춘다.

그런데 다르덴 형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극영화를 만든다.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를 만들어내는 현란한 카메라 조작으로 현실을 잊게 만드는 대신 핸드헬드 카메라로 영화 속 공간에 파고들되, 그 카메라는 비전문배우들이 연기하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연기를 객관적으로 지켜보기만 한다.

> **다르덴 형제 감독한 〈자전거를 탄 소년〉**
> **자전거 팔고 자신 버린 아버지 기다리는**
> **주인공 시릴을 객관적 시선에서 조명해**
> **아이 성장 기다려주는 사만다, '참 어른'**

섣불리 렌즈의 시선에 감정을 실어 영화 속 인물에게 이입하는 대신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상황과 사건이 인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관객이 납득하고 공감할 때까지 감독의 시선은 집요하게 한 발 물러서있다. 카메라는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거리에서 한 신을 하나의 컷에 담아낼 뿐, 등장인물의 감정을 싣는 시점샷이나 인물들 각자의 행동과 대응을 주관적으로 만드는 반응샷으로 극적 긴장을 높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관객은 영화 속 상황을 온전히 객관적인 사건으로 지켜보여야 하며, 그 상황이 극적으로 고안된 허구가 아니라 충분히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루하거나 진부한 것이 아니라 숨 막히게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다. 무심히 지나치던 일상의 틈새가 벌어진 순간 그 안에 들끓는 타인의 고통을 마주치게 될 때 겪게 되는 가엾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등장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뭐라 감히 탓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복잡한 마음이 카메라의 시선을 따라 관객의 가슴에 묵직하게 들어차도록 만든다.

〈자전거 탄 소년〉도 마찬가지다. 주인공 시릴(토마 도레)은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영화 속 인물들이고, 관객이고 간에 죄다 불편하게 만든다. 어쩌면 아이가 저토록 밉상일까 싶게 막무가내로 자신이 바라는 것만 집요하게 요구할 뿐, 그런 집착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얼마나 난처하게 만드는 지는 전혀 돌아보지도 마음에 담지도 않는다.

시릴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자신의 자전거를 되찾는 것이다. 그 자전거는 한 달 후에 데리러 오겠다며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아버지가 사 준 것이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가 찾으러 오기는커녕 전화도 끊기고, 집도 이사 가서 찾을 길이 없다. 자전거를 찾으려면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자전거를 포기하는 것은 아버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를 받아들이는 대신 시릴은 수신자 없는 전화기에 매달리고, 보육원에서 달아난다.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자전거, 내 자전거, 아빠가 사 준 바로 그 자전거.'

우연히 시릴과 부딪힌 사만다(세실 드 프랑스)가 중고로 팔려 나간 소년의 자전거를 되사서 가져다 준 것은 한 번쯤 딱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회적 선행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의 때문에 사만다는 시릴의 주말 위탁모가 된다.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서가 아니라 시릴이 그래주길 바랐기 때문에.

시릴이 사만다에게 위탁모가 되어달라고 한 것은 자전거를 찾아 준 너그러운 어른에게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전거를 판 사람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아빠가 자신의 자전거를 팔았을 리 없으니 그 녀석은 도둑임이 틀림없다면서.

그러나 시릴의 아빠는 아이의 자전거 뿐 아니라 자신의 오토바이도 함께 팔아치웠다. 아이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두 바퀴에 싣고 페달을 함께 밟아 달려가는 대신, 육아에 지치고 생활고에 치이는 불안한 안장에서 내려서 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이미 안장에서 내렸지만 시릴은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있다. 미친 듯이 페달을 밟으며 달려가지만 이미 그 자전거에는 희망도 기대도 실려있지 않다. 그래서 시릴은 자꾸 엇나간다.

자전거를 되찾아 준 이가 아빠가 아니라 사만다이므로 사만다는 이제 그 책임을 져야한다. 아이가 무슨 짓을 하든 자전거를 빼앗지 않을 거라면 옆에서 함께 달려야 한다. 그렇게 달리는 것이 숨 가쁜 일이라 해도 바람을 가르며 페달을 밟는 그 일이 가슴 가득 새로운 공기를 불어 넣게 되는 것은 자전거를 직접 타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감각이다. 그 감각이 불러일으킬 감정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탄 소년〉은 관객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동안, '자전거를 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렇다.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이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이는 아이에게 자신만의 값진 세계를 선물하는 사람이며, 아이와 자전거를 함께 타고 달리는 이는 아이의 성장과정을 함께 겪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어른은 '자전거를 탄 아이'가 넘어졌을 때, 쓰러진 자전거를 바로 세우고 자신이 가야할 곳에 자전거를 기대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 아이에게는 바로 전륜성왕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다.

〈자전거 탄 소년〉은 보는 내내 숨이 막히지만, 영화가 끝나고 자전거를 탄 소년이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순간 한껏 달려온 호흡을 풀어내도록 만든다. 이 아름답고 벅찬 영화를 보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진다면 혼자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이와 함께이고 싶어서일 것이다.

〈영화평론가〉



